



3·15 의거 퍼포먼스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가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3·15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재현한 '곡(哭) 민주주의 장송데모' 퍼포먼스를 열었다. 이 단체는 올해 제52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호남의향 4·19 통일'의 날로 선포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리산 정령치

오늘부터 개방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겨울철 통제했던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정령치~도계삼거리 구간을 16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경사가 심하고 북사면에 위치해 있어 눈이 녹지 않아 매년 12월부터 차량을 통제했다. 북부사무소는 제설작업과 낙석제거 등 안전조치 후 개방하기로 했으나 현재 일부 결빙 구간이 있어 통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정보에 대한 문의는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063)625-8911~2 또는 정령치 휴게소(063)625-1172. /연합뉴스

오늘 날씨: 광주 6시 42분 해질 18시 41분, 다음날 02시 19분 해질 12시 36분. 전국 날씨 지도와 광주 지역 날씨 정보, 파고, 강수량, 주의 사항 등.

후 놔두고 대중교통·도보 출근

기름값 고공행진... 내뱉생활 백태

"장사 할 수록 손해" 트럭행사들 아우성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즐기던 회사원 박모(44)씨의 라이프 스타일이 최근 달라졌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기름값 때문이다. 주말이면 광주 근교에서 드라이브와 목욕을 즐겼던 박씨 가족은 요즘들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한다. 나들이 때 들어가는 기름값이 만만치 않아 섣불리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회사원 구철훈(28)씨는 얼마 전에 어렵사리 장만한 승용차를 집에 놔두고 출근한다. 월급 통장을 쪼개 자취 생활을 하는 그에게는 월 2100원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구씨는 "출퇴근 전장을 치르기 싫어 큰 맘먹고 차를 뺐었는데 기름값 부담에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이 서민

가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해 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생계를 위해 트럭에 과일, 채소 등을 싣고 동네 곳곳을 누비던 트럭 행상도 줄어들고 있다. 치솟는 경유값에 트럭을 몰고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다. 트럭 행상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연료인 경우 가격은 월 1800원대를 넘어서는 등 연일 치솟고 있어서다. 때문에 생계의 수단인 트럭을 중고차 매매상에 내놓거나 매매를 문의하기도 한다. 한편 15일 유가정보서비스 오픈넷(Opinet)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월 2019.62원을 기록했고 최고가는 월 2098원, 평균 경유 가격은 월 1840.21원, 최고가는 월 1915원으로 나타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장만채 "잘못 있다면 직 걸겠다"

교과부 대학기금 관련 수사의뢰 강력 반발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15일 "(검찰 수사 결과) 잘못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교육감 직위에도 연연하지 않겠다, 명백하게 잘못이 없으면 음모라면 양심세력과 함께 악의 그림자를 지우고 걷어내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또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순천대 총장 재직시 대학발전기금 집행건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악의 집단의 검은 손'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이 직위를 걸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은 그만큼 수사의뢰 조치가 상식 밖이라는 항변으로 해석된다. 장 교육감은 "다만 '악의 집단'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집단이다"며 "술수와 꾀수를 쓰지 않는 교

육 가족은 악의 집단이 아니며, 검찰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교과부 감사에서 문제가 된 대학발전기금의 대외활동비(월 300만원)는 순천대만이 아닌 전국 대부분 대학에 해당된다"며 "교과부가 이번 감사결과 경정계를 받은 대외활동비 집행에 크게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대외활동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며 교직원 상당 인상을 전 구성원의 합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순천대 감사를 통해 장교육감이 대외활동비(30개월) 7800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뒤 정산하지 않았으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수능 자격고사제 도입 등 대입제도 개선과 놓여온 교육특별법 제정 등을 정치권과 관련기관에 제안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주말 최고 40mm 비

주말, 광주·전남 지역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다소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18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기온은 평년(광주 1도~13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17일과 18일에는 많지 않은 비가 내리겠고, 18일 오전부터는 포근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insurance. Features a knight on a horse and text: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 젠 톤 -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Gaba' (가발) hair products. Features a large '50' and text: "21년 가발 명가",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Includes a map and contact info for 'Dae-san Primo Gaba'.

Advertisement for 'An-dong Gango-dong-eo' (안동 간고등어). Features a man holding a fish and text: "호남총판 광주 1호점", "안동 간고등어", "10박스 이상 구매시 제주도 왕복 항공 여행상품권 증정 2인(2박3일)". Includes contact info and a website.